

2020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조사(요약)

1. 쌀가공식품 시장 개요

■ **쌀가공품이란 쌀**(벼. 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함

-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서는 쌀가공식품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빵·과자류, 떡류, 면류, 가공밥류, 수프·죽류, 주류, 음료, 기타 곡물 가공품, 곡물제분(쌀가루) 등으로 분류함
- 식품공전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과자류, 빵류, 떡류, 면류, 즉석식품류, 주류, 음료류, 농산가공식품류의 곡류가공품, 당류, 조미식품, 장류, 기타 식품류 및 기타가공품 중 쌀로 만든 식품을 쌀가공식품이라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2016).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2020), 식품공전

〈쌀가공식품 유형별 주요 제품〉

떡류	밥류	죽류	면류	쌀과자류	쌀음료류	주류
						
풀무원 우리쌀 떡볶이떡	CJ제일제당 햇반	CJ제일제당 비비고 전복죽	면사랑 우리쌀 생쌀국수	오리온 구운쌀칩	팔도 비락식혜	국순당 쌀막걸리

■ **정부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계획'을 통해 쌀 소비 활성화 및 쌀가공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옴**

- 2011년 쌀가공산업법 제정 후 2014년 '제 1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및 추진했으며, 2019년 6월에는 미래 유망 분야 발굴, 산업혁신 기반 강화, 수요 기반 확대를 목표로 '제 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음
-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감소 문제 해결 및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쌀가공식품 관련 R&D 투자 지원과 양곡 공급기반 확충 및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중임
- 쌀가공식품 수출 지원 사업 추진 결과로 2019년에는 연 수출액 1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가공식품 맞춤형 신품종 개발 및 기술 이전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2. 쌀가공식품 원료 수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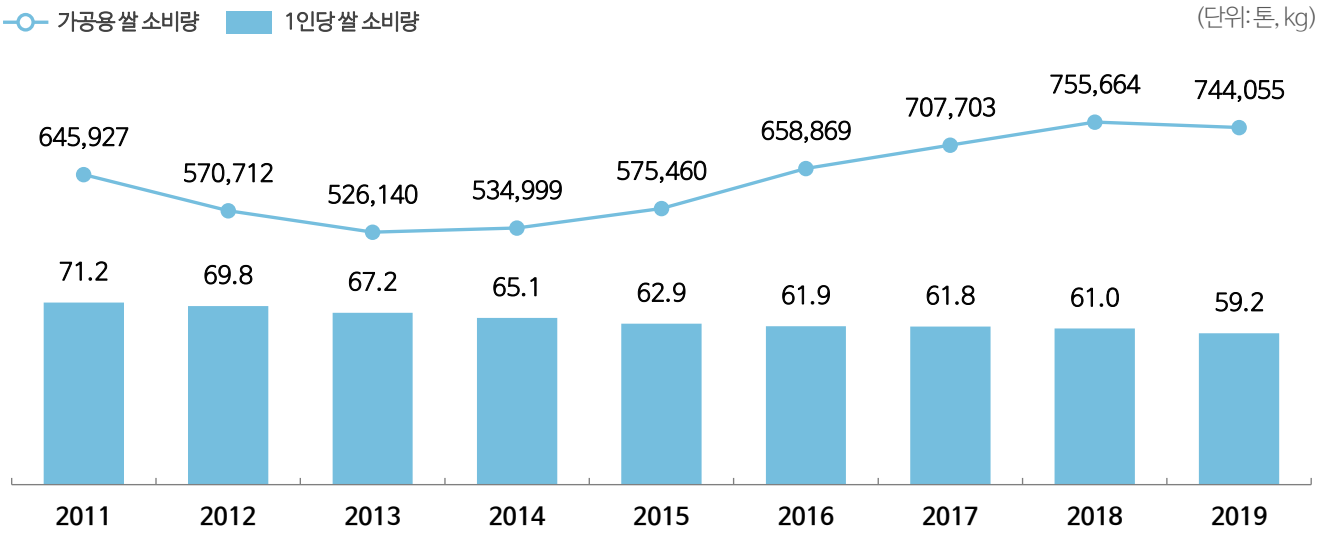
2015년 이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세, 가공용 연간 쌀 소비량은 증가세

2019년 가공용 쌀 소비량은 744,055톤(전년 대비 1.5% 감소)으로 2015년 대비 29.3% 증가

■ **(가공용 쌀 소비량 증가)**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서구식 식습관 확산으로 2015년 이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감소세인 반면 쌀을 원료로 한 HMR 제품 증가와 식사 대용 및 간식 용도의 쌀가공식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공용 쌀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함

- 2019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2018년 61.0kg 대비 3.0% 감소했으며, 2011년 71.2kg에 비해 16.9% 감소함
- 2013년 이후 해마다 증가해오던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18년 75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74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함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 및 1인당 연간 쌀 소비량(2011~2019년)〉



※ 국가통계포털 (2020.10.12.). 양곡소비량조사

■ **(떡류, 도시락, 기타 곡물 제조업의 쌀 소비 증가)** 2019년 업종별 가공용 쌀 소비 현황을 보면 주정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91,407톤으로 25.7%를 차지했고, 떡류 제조업은 176,500톤(23.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145,187톤 (19.5%),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은 56,007톤(7.5%)를 차지함

- 2019년 떡류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76,500톤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떡볶이가 대표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전국 유명 떡집들의 온라인 판매로 그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떡볶이떡, 전통떡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보임
-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은 145,187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으며, HMR 시장이 커지면서 육류, 기타 곡물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는 제품들이 등장했고, 건강식으로 잡곡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 쌀 소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56,007톤으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바쁜 현대인들이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누룽지, 쌀시리얼, 선식, 뻥튀기 등을 섭취하면서 쌀 소비량도 증가한 것으로 보임
- 탁주 및 약주 제조업에 사용된 쌀은 49,547톤으로 전년 대비 18.5% 감소했으며, 프리미엄 막걸리 제품으로 인한 가격 상승과 전통주를 대체할 수 있는 주류가 다양해진 점 등이 수요 감소 원인으로 분석됨

〈업종별 연간 쌀 소비 현황〉

(단위: 톤, %)

업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떡류 제조업	170,980	169,618	168,865	172,317	176,500
	(29.7)	(25.7)	(23.9)	(22.8)	(23.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96,411	100,247	114,341	147,474	145,187
	(16.8)	(15.2)	(16.2)	(19.5)	(19.5)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41,610	46,823	42,839	45,105	56,007
	(7.2)	(7.1)	(6.1)	(6.0)	(7.5)
탁주 및 약주 제조업	46,403	51,592	56,872	60,785	49,547
	(8.1)	(7.8)	(8.0)	(8.0)	(6.7)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1,115	9,938	13,896	18,434	20,126
	(1.9)	(1.5)	(2.0)	(2.4)	(2.7)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2,956	12,294	12,243	13,164	13,230
	(2.2)	(1.9)	(1.7)	(1.7)	(1.8)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7,194	9,033	9,042	8,866	9,280
	(1.3)	(1.4)	(1.3)	(1.2)	(1.2)
장류 제조업	10,858	10,530	10,892	12,029	9,062
	(1.9)	(1.6)	(1.5)	(1.6)	(1.2)
기타	22,179	26,438	62,910	89,928	73,709
	(3.8)	(4.1)	(8.8)	(12.0)	(10.0)
주정제조업	155,754	222,356	215,803	187,562	191,407
	(27.1)	(33.7)	(30.5)	(24.8)	(25.7)
합계	575,460	658,869	707,703	755,664	744,055

※ 통계청(2015~2019년). 각 연도별 양곡소비량조사

3. 출하 및 수출입 동향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37,560천 달러로 2016년 이후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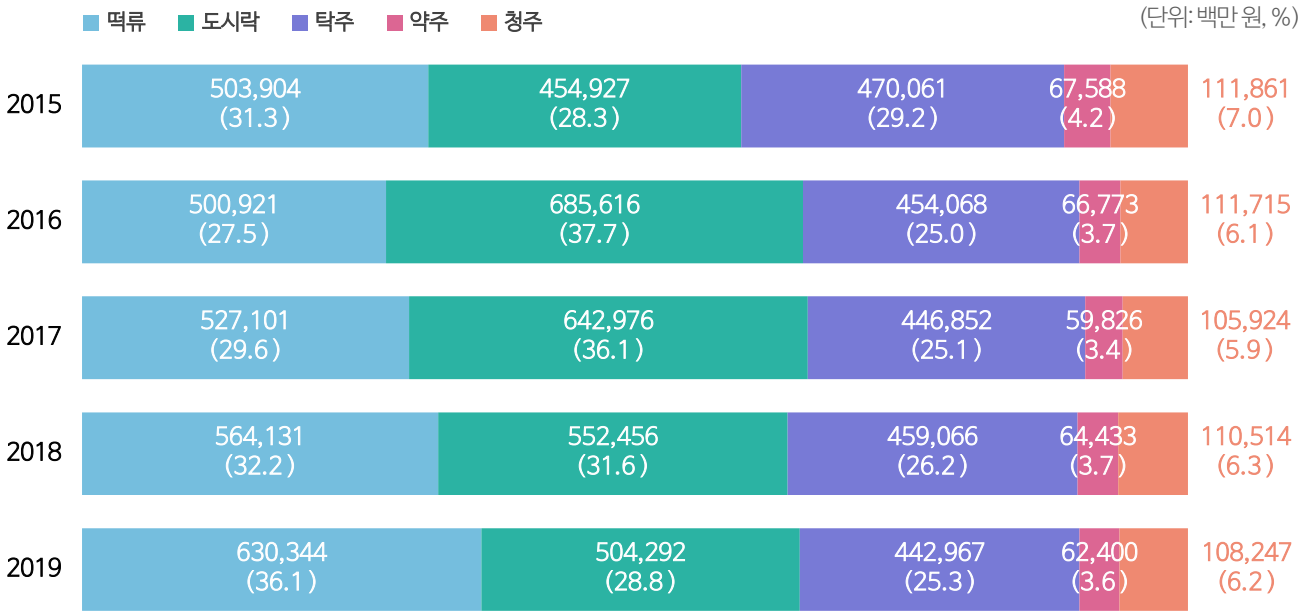
2020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6.9% 증가, 가공밥(32.2% ↑)과 떡류(56.7% ↑) 수출액이 크게 증가

■ 2019년 주요 쌀가공식품 출하 규모를 살펴보면 떡류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도시락은 2016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고, 탁주, 약주, 청주는 모두 2019년 기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떡류의 출하 규모는 간식용 떡이 인기를 끌면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6,303억 원을 기록한 반면, 도시락은 HMR 등 대체 제품들의 다양화로 인해 2019년 5,043억 원을 기록하며 출하 규모가 2016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 탁주는 2019년 4,43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3.5% 감소했고, 약주는 624억 원으로 3.2% 감소, 청주는 1,082억 원으로 2.1% 감소함

〈주요 쌀가공식품 출하 실적〉

(단위: 백만 원, %)



※ 떡류, 도시락 출하실적 : 각 연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의약품안전처
※ 탁주, 약주, 청주 출하 실적 : 각 연도별 국세통계, 국세청

〈쌀가공식품 HS코드〉

쌀가공식품 수출입 현황은 관세청의 수출입무역통계를 통해 알아보며, 수출입 품목을 구분하는 HS코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분류기준을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함

쌀과자	HS코드 1905.90.1050(쌀과자)
곡물가공품(가공밥)	HS코드 1904.90.9000(곡물조제품 기타), 1904.90.1010(찌거나 삶은 쌀)
곡물가공품(떡류)	HS코드 1901.90.9091(맥아 추출물의 조제식료품(쌀가루의 것))
전통주	HS코드 2206.00.2030(탁주), 2206.00.2020(약주), 2206.00.2010(청주)
기타곡물조제품	HS코드 1904.20.9000(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기타), 1904.90.1090(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낟알모양의 쌀(기타-기타), 1806.90.3091(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기타-낟알모양의 쌀), 1515.90.9010(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2302.40.1000(미강), 1901.20.1000(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쌀가루의 것)), 1904.10.3000(퍼프드 라이스), 1905.90.9020(라이스 페이퍼)

※ 관세청(2021.01.11.). 수출입무역통계

■ 2020년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137,560천 달러로 2019년 108,431천 달러 대비 26.9% 증가했고, 2016년 67,529천 달러 대비 2배 가량 증가함

- 2020년 유형별 수출 규모는 곡물가공품(떡류, 가공밥)이 99,607천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통주가 13,779천 달러, 쌀음료는 12,566천 달러, 쌀과자가 6,071천 달러, 기타곡물조제품이 3,898천 달러, 쌀국수는 약 1,638천 달러 순으로 나타남

〈쌀가공식품 유형별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수출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율('19/'20)
쌀과자	6,929	6,771	6,797	5,584	6,071	8.7%
곡물가공품	30,666	36,312	50,139	68,990	99,609	44.4%
가공밥	17,029	20,254	25,527	34,685	45,859	32.2%
떡류	13,638	16,058	24,612	34,304	53,750	56.7%
쌀국수	1,489	1,407	1,382	1,353	1,638	21.1%
쌀음료	11,331	10,399	13,978	16,137	12,566	-22.1%
식혜	1,115	1,177	1,261	1,509	1,680	11.3%
기타	10,216	9,222	12,717	14,628	10,886	-25.6%
전통주	14,418	13,635	13,990	13,681	13,779	0.7%
탁주	12,868	12,247	12,413	12,191	12,469	2.3%
약주	709	662	782	722	648	-10.2%
청주	841	726	795	768	663	-13.7%
기타곡물조제품	2,697	3,508	3,022	2,687	3,898	45.1%
합계	67,530	72,032	89,308	108,432	137,561	26.9%

※ 관세청(2021.01.11.). 수출입무역통계
1) 1902.19.1000(국수), 2202.99.9000(음료 기타)는 쌀가공식품 외 품목이 포함되어 농식품부 보도자료(2020.01.17.) 수출실적 반영함

■ 2019년 쌀가공식품 수입액은 7,735만 달러로 2018년 8,368만 달러 대비 7.6% 감소하며, 2015년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주춤함

- 2019년 유형별 수입 규모는 기타곡물조제품이 2,929만 달러로 가장 큰 규모였으며, 쌀과자는 2,579만 달러, 전통주(청주)는 1,580만 달러, 곡물가공품은 553만 달러를 기록함

〈쌀가공식품 유형별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수입액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율('18/'19)
쌀과자	19,878	22,222	24,076	22,989	25,791	12.2%
곡물가공품	6,016	5,221	6,078	6,267	5,528	-11.8%
가공밥	4,148	3,579	3,990	4,686	4,714	0.6%
떡류	1,866	1,640	2,085	1,578	807	-48.9%
전통주	13,278	16,556	18,564	22,517	15,797	-29.8%
탁주	0	0	0	5	0	-
약주	0	0	0	0	0	-
청주	13,278	16,556	18,564	22,512	15,797	-29.8%
기타곡물조제품	29,780	29,209	30,111	30,909	29,289	-5.2%
합계	68,950	73,206	78,826	82,679	76,398	-7.6%

※ 관세청(2021.01.11.). 수출입무역통계
1) 1902.19.1000(국수), 2202.99.9000(음료 기타)는 쌀가공식품 외 품목이 포함되어 해당코드는 수입 실적에서 제외하고 2202.90.3000/2202.99.3000(식혜)의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수입현황에서 제외함

■ 2020년 쌀가공식품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베트남, 중국, 홍콩 등이며, 2019년 주요 수입 대상 국가는 중국, 태국, 일본임

- 2020년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으로는 곡물가공품(가공밥, 떡류), 쌀과자, 기타곡물조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으로는 곡물가공품과 전통주(탁주), 중국으로는 쌀과자와 기타곡물조제품, 베트남으로는 쌀음료를 주로 수출함
- 2019년 국가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으로부터는 곡물가공품, 쌀과자를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태국에서는 현미유, 일본에서는 전통주(청주)가 가장 많이 수입됨

4. 유통 및 판매 현황

2019년 쌀가공식품 판매 규모는 8,8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가공밥, 떡류, 죽류, 쌀라면 판매액은 증가, 쌀과자, 현미유, 쌀식빵은 감소

■ **(가공밥, 떡류, 죽류가 판매 규모 성장 주도)** 2019년 쌀가공식품 전체 소매 시장 규모에서 유형별 점유율을 보면 가공밥이 55.9%, 떡류는 17.4%, 죽류는 15.1% 순임

- 가정간편식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가공밥 판매액은 2019년 4,9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5.5% 증가함
- 떡은 2019년 1,5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떡볶이떡의 매출이 1,0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했고, 떡국떡은 346억 원(5.2%↑), 떡류는 1,123억 원(7.9%↑)으로 나타남
- 죽류는 1,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5% 급증했고,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를 타깃으로 즉석 조리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죽 제품이 출시된 것이 시장 성장의 원인임

■ **(할인점, 편의점을 통한 판매 증가)** 2019년 쌀가공식품 판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채널은 할인점(32.5%), 편의점(24.0%), 체인슈퍼(18.8%) 순임

- 할인점은 다양한 제품을 구비하고 있으며, 할인 행사를 통한 가격 경쟁 우위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으며, 편의점은 접근성이 좋아 편리하다는 점과 바쁜 직장인과 학생 등 주 타깃층 대상 맞춤형 제품들을 갖추고 있어 소매 채널 중에서 가장 큰 폭의 점유율 성장을 보임
- 가공밥, 떡류, 죽류의 할인점과 편의점 매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HMR 시장에 다양한 메뉴의 가공밥, 컵떡볶이, 즉석죽이 할인점을 통해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자체 PB 상품들도 많이 출시되었기 때문임

5. 소비자 동향 및 트렌드 분석

코로나 19 확산으로 가정식이 늘어나면서 쌀가공식품 수요 및 온라인 채널 이용 증가

가공밥, 떡볶이떡, 즉석죽 등 HMR 구입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이용

■ **(가공밥, 떡볶이떡, 즉석죽 구입률 높아)** 쌀가공식품 유형별 구입률은 가공밥(45.2%), 쌀떡볶이떡(9.4%), 즉석죽(9.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가공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구입율이 높아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남
- 떡볶이떡은 남녀 모두 30~40대의 구입률이 높았으며, 즉석죽은 30대 이상 여성층에서 구입률이 높게 나타남
- 떡국떡의 구입률은 40대 이상 여성 층에서 높았으며, 탁주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구입했으며 특히 50대 이상 남성 층에서 구입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로 HMR 구입 및 온라인 구매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을 자제하고 내식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식사 대용 쌀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함.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구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구입이 증가한 쌀가공식품으로는 가공밥(56.1%)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떡볶이떡(24.9%), 즉석죽(22.3%) 순으로 나타남
- 쌀가공식품 선호도는 구입경험과 유사하게 가공밥에 대한 선호도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떡볶이떡(10.8%), 즉석죽(8.1%), 쌀과자(7.9%), 떡국떡(6.8), 탁주(6.3%) 순으로 나타남
- 전년 대비 구입이 증가한 채널로는 공통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가장 많았고, 떡국떡 (64.5%), 떡볶이떡(63.9%), 가공밥(69.9%), 즉석죽(61.1%)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구입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이 60% 이상임

■ **(1인용 간편 조리 HMR, 연령별 특화 제품 증가)** 즉석밥, 즉석죽, 간편식 떡국, 컵떡볶이 등 쉽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HMR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1인 가구 대상으로 소포장 제품들이 출시됨. 영유아를 위한 이유식용 쌀가루, 아이들 간식용 쌀과자, 젊은 층을 겨냥한 누룽지와 전통주 등 연령별 소비자 맞춤형 쌀가공식품이 증가함

1인 가구를 타깃으로 한 쌀떡국떡		한끼 식사용 프리미엄 가공밥		프리미엄 즉석죽	
					
칠갑농산 우리쌀 떡국떡	신세계푸드 올반 진한 사골떡국	CJ제일제당 햇반 매일찰잡곡밥	오뚜기 부산식 돼지국밥	동원F&B 양반 파우치죽	본아이에프 아침엔본죽
저칼로리 및 채식주의 쌀국수		**여성 및 젊은층을 겨냥한 전통주**		**대체 우유로 떠오른 라이스밀크**	
					
청정원 미역국쌀칼국수	농심 강황쌀국수볶음면	국순당 1000억 프리바이오 막걸리	복순도가 손막걸리	이롬 라이스밀크	롯데 뉴트리밀 라이스밀크
안전성을 강조하는 유기농 쌀과자		**다양한 연령층을 타깃으로 한 쌀과자**		**간편 식사 대용 누룽지**	
					
아이배냇 곡물친구	뉴오리진 유기농 라이스볼	네이처오다 달칩 초코샌드	설빙 인절미 떡뻥, 스낵	칠갑농산 더욱 고소한 누룽지	대상 청정원 집으로ON 누룽지 반계탕

■ **(밀 보다 쌀 제품에 긍정적)** 소비자들은 쌀로 만든 제품이 밀 제품에 비해 더 안전하고, 소화가 잘 되며,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인식함

- 소비자들은 쌀에 대해 밀보다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소화도 잘 되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며,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쌀은 밀보다 제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가격이 비싸며, 유통기한이 짧은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 향후 출시를 희망하는 쌀가공식품으로는 성인을 위한 아침 대용식,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식품, 소화 촉진 식품, 시니어를 위한 고령친화식품, 자녀들을 위한 간식 및 성장 발육용 식품이라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남

6. 해외 시장 동향

건강을 위해 쌀을 선호하는 문화 확산으로 다양한 유형의 쌀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각 지역의 식문화와 사회 환경에 따라 가공밥, 쌀과자, 쌀음료, 쌀국수, 주류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됨

(일본은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추진) 일본은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어 쌀 소비를 촉진하는 정부 주도 캠페인을 진행함

- 2019년 일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3.0kg으로 쌀 가격 상승, 1인 가구 증가, 서양식 식습관 확산 등으로 인해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어려서부터 학교와 가정에서 흰 쌀밥을 먹도록 교육하는 등 쌀 소비 장려 캠페인을 추진하며 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함
- 2019년 일본의 쌀가공식품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전년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주류는 2015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보임

(중국 쌀 소비는 증가세) 중국 내 쌀 소비량은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식용 쌀의 소비에 비해 사료 및 가공용 쌀의 소비가 증가하는 폭이 큼

- 중국에서는 빠른 도시화, 경제발전 등으로 식습관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쌀이 아닌 다양한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나타남
- 중국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즉석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공밥 수입도 증가해 2017년에 518만 달러를 기록함
- 중국 이유식 쌀가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영유아 식품 멜라닌 파동으로 인해 자국의 기업보다는 해외 기업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임

(미국 쌀 소비 시장 규모는 증가세) 미국 내 쌀 소비 시장은 크지 않지만 점차 아시아계 및 히스패닉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쌀 소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쌀 수입량은 10년 만에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품종도 미국 내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라 아시아 특유 쌀 품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미국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면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쌀에 관한 정보와 조리법 등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경우가 많음

(베트남 시장은 쌀국수, 쌀음료 중심으로 성장) 베트남의 쌀 소비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 및 산업 다변화로 쌀 이외의 다른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임

- 베트남을 대표하는 쌀국수에는 여러 종류의 쌀면과 조리 방식이 있으며, 과일을 곁들이는 등 차별화된 새로운 메뉴가 인기를 얻음
- 베트남에는 라이스 페이퍼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유명한 만큼 라이스 페이퍼의 종류도 다양하며 새로운 재료를 첨가한 신제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음
- 최근에는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현미, 유기농 쌀을 활용하는 프리미엄 쌀가공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아침햇살은 현지에서 모닝 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아침 식사를 중요시하는 베트남 문화에 친숙한 쌀을 이용한 음료라는 점이 결합해 판매량이 급증함